

하나님을 경험하라

〈전도를 위한 편지〉



편지를 도구로 활용하세요.

시작 세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도구가 실려 있습니다.

- 헬무트 하우바일, 커트 하젤 저

시작 세트 -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편지〉

〈전도를 위한 편지〉들은 실제 경험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검증된 도구입니다. 이 편지들을 사용하면 12가지의 좋은 점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교인과 구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음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봉투에는 각각 필요한 편지 한 부씩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과 편지의 내용도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할 때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 때 큰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봉투는 참고용 메모를 쓰기 위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번호의 편지를 전달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 1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 8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 성취 가능성 1:10¹⁷
- 2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나사렛 예수
- 3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13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생명을 붙잡으라
- Z1 부가: 영생에 이르는 길
- 14 하나님 능력 안에 사는 삶 - 어떻게?
- 5 담배와 술을 정복함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들

이 편지들은 위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 아돌프는 도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도 그런 도움을 원하신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Helmut Haubeil, Rosenheimer Str. 4, D-83043 Bad Aibling (Germany)
Email: helmut@haubeil.net

- ▶ 개인적 신앙 부흥 사이트 <https://steps-to-personal-revival.info/>
- ▶ 온라인 통신학교 faithkorea.com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다른 모든 내기를 넘어서는 내기가 있다. 바로 '파스칼의 내기'이다.

남께

다른 모든 내기를 넘어서는 내기가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블레이즈 파스칼은 누구였는가?

블레이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뛰어난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발명가로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신동이었습니다. 이미 11살에 그는 기초 기하학 원리를 고안했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뛰어난 지성으로 그는 확률이론의 원리를 발전시키고 확립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논리적 사고에 대한 원리를 만들어 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공무원이던 그의 아버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때문에 지체되자 파스칼은 최초의 계산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계산기 개발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파스칼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으며 중요한 수학 명제들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는 31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글을 썼으나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에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유명한 현대의 컴퓨터 언어도 그의 이름을 따라 파스칼이라 불립니다.

이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공정하게 50대5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로 알려진 그의 사상은 역사를 통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너희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만약 너희의 말이 맞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실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며 그 것으로 끝날 것이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손실일까?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참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파스칼의 예리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일찍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해 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요일 5:12).

한 의사가 믿음을 거부하다.

유명한 의사 비고 올센 박사는 블레이크 파스칼의 진술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내내는 기독교 신앙에 맞서 죽을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찾을 수 있는 모든 반증을 찾았으며 한 걸음씩 매우 특별한 모험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올센 박사는 그의 책 『탐구하는 불가지론자』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나?

그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믿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블레이크 파스칼의 확률이론과 그 이론을 성경적 신앙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적용한 것, 소위 ‘파스칼의 내기’가 그들의 신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주의할 점: 이는 성경에 따른 기독교 신앙의 기반과 관련이 있으며 교회 전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파스칼: 더 나은 선택

그 외과의사는 “블레이크 파스칼은 우리가 오늘날 내려야 하는 바로 그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사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올바른 가능성이 50%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각이 있으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기를 해야 한다.

인생이란 게임에서 모든 사람은 내기의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내기에는 판돈이 걸려 있습니다. 각 사람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주장하거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능성

한 사람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의 가정이 옳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만일 잘못된 가정이라면 그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의 가정이 옳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만일 그의 가정이 틀렸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속고

올센 박사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때 열정적인 도박꾼이었기 때문에 파스칼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파스칼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이 옳을 가능성이 단순히 50대50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스칼은 기독교 가르침이 진리라는 셀 수 없는 증거를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중에야 파스칼이 결국 증거를 찾아보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나중에 증거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 주장의 증거나 그 반대 주장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올바른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의 확률이론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러한 노력은 풍성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올센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믿음에 관한 분명한 통찰을 갖게 되었다. 나는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둔하여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에게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 말했다. ‘두 환자가 동일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둘은 나를 숙련된 의사로 생각한다. 그들 모두는 나의 진단이 옳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내가 처방한 주사를 맞으면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 중 하나는 주사를 맞고 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내 치료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에 대한 불합리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 그는 죽는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환자 모두 믿었고, 둘 다 의약의 치료하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지 않은 믿음 곧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소유되지 않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
- ▶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 ▶ 다른 소원과 목적을 가진 변화된 생애
- ▶ 생애를 위한 새로운 내적 힘
- ▶ 온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삶
- ▶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성경에 따르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없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가?

증거를 알게 됨

● **예언들:** 성경은 오랜 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증명 가능한 수백 가지의 성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예지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 **성경 자체가 기적:**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관한 이 책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66권의 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성경의 내용들이

모두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 **고고학적 발견들:** 고고학적 발견들은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 **변화된 생애:** 모든 각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하고 의미가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증거를 저울질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아감

● **성경 읽기:** 우리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약이 우리 시대와 더 가깝고 우리에게 이곳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통찰을 주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 후에 구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읽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 **성경 통신 과목:**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급자와 상급자를 위한 좋은 무료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홀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성경 토의 그룹:** 이것은 작은 규모의 편안한 환경에서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예: 스카이프(Skype)를 사용하여).

● **성경 강의:**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의심하는 사람들:** 솔직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진정 존재하신다면 당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7:17). 그러나 의도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점점 더 성경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적대감도 없지만 그분의 ‘지상 근무원(기독교인들 혹은 교회)에게는 많은 적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이 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에 유리한 증거를 특징으로 하는 안드레에게 보내는 추가 편지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6: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가장 짧은 세계의 역사가 2,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 ▶ 그것은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 ▶ 여섯 예언 중 다섯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 ▶ 유럽은 정치적 연합을 달성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7: 예방 아니면 치유?

- ▶ 예방의학의 기원은? ▶ 누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는가?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8: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 ▶ 인체 기준에 따른 성취 가능성 1:10¹⁷
- ▶ 그러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9: 네 도시에 대한 예언

- ▶ 수학적 확률이 200조대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 예루살렘의 황금문, 이상한 바위 도시 페트라, 전설의 바벨론, 두로의 흥망성쇠

남께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몇 가지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신중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선을 긋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일꾼 즉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내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질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가?
2.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는가?
3.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졌는가 아니면 단순한 인간의 작품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매우 만족스러운 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확신 시키기보다 당신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직은 낯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 중 수백 가지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잘 알 수 있고, 예언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중 일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새로운 측면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불리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헬라어 ‘크리스토스(그리스도)’와 더 친숙합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구세주, 구속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아적 예언들은 333가지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 큰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당신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언은...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을 해석하자면 성경은 신성한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상관관계를 보면 그 예언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지자들이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압니다. 일기 예보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미리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요인들에 근거하여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그분이 오시기 400년과 1,500년 전 사이에 다수의 선지자들

에 의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시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선거를 생각해 봅시다. 선거일 아침에 아무도 누가 이길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특정 사람들을 여론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그 후에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이것은 계산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언은 성경의 신성한 검증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수 세기 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었던 성경 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비슷한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을 만일 당신이 찾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한 미국인으로부터 5,000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책을 발견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도 위조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할수록 예언들과 성경의 신성성이 더욱 힘 있게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줍니까?

1. 수 세기 전에 이미 상세히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계시하신 것은 일어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 역시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생각이나 우연의 일치로 인해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씀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3. 모든 사람은 어떤 특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일본에서 오는 편지는 나라, 타운, 거리, 집 번호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당신에게 배달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333가지 예언은 하나님께서 많은 특징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이 특징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께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증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보다 대략 7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탄생지가 될,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장소를 지적합니다. 이 예언은 밝히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3~6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가는 단지 추측을 잘했을 뿐이었던가? 700년 후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는 단지 우연의 일치였는가?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나흘이 걸리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왜 이 큰 수고를 아기를 낳기 바로 전에 해야 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상의 본적지로 가야 했습니다. 이 일은 진작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인구 조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황제는 그들의 반대를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유명한 영국 화학자요 고고학자인 윌리엄 램세이 경은 이 일을 언급한 로마의 면각을 1923년에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 순간에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성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7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오직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

미가는 전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700년 후에 독일을 통치할 사람이 태어날 장소를 예언할 수 있나요? (700년 후에도 세상이 아직 존재한다면)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앞으로 정말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한바.”

또한 많은 성경에는 그 예언이 있는 구약 성경 구절에 대한 관주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이 우리가 더 쉽게 연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주를 적어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메시아적 예언은 모두 구약에 있으며 이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00전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이 모든 내용이 400년 이전에 예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미가가 예수님보다 대략 700년 전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살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은 예수께서 지상에 사신 후에 쓰였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예언의 성취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대부분의 예들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예언의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 ▶ 유다 족속에서 나실 것임
- ▶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것임
- ▶ 선구자(기별자)가 그분의 오심을 전할 것임
- ▶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
- ▶ 그분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눌 것임
- ▶ 뼈가 꺾이지 않을 것임
- ▶ 그분의 옆구리가 찔릴 것임
- ▶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모든 세부 묘사들이 성취됨. 이것들은 333개의 예언된 세부 사항 중 몇 가지일 뿐임.

전 생애의 이야기가 태어나기 전에 쓰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생애 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레고리 박사는 수백 개가 아니라 만일 50개의 예언들만이라도 “우연히” 성취 되었어도 이 “우연”은 천백이십오조분의 일의 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1,125,000,000,000,000:1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다시는 성경의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벧후 1:19).

모든 메시아적 예언을 연구한 멜다우는 말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영원한 성령께서 이 모든 상세 내용들을 계획하셨고 전능하신 손이 그의 완전한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볼 수 없거나 혹은 보기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눈먼 사람이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예언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 줍니다.

● **오늘의 요약**

1. 살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 중에서 예언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2. 인간은 수 세기 전의 이 같은 예언들을 그토록 자세히 예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전례 없는 메시아적 예언을 통해 증명된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신뢰해도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목적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 14:29).

저는 당신이 성경에 대한 믿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이기에 기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성취 가능성 1:10¹⁷

남께

오늘 저는 당신에게 놀라운 세 가지 예언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가서는 인간의 지혜로 따져 보자면 10의 17제곱 대 1이 되는 여덟 가지의 메시아 예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1.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옷에 대하여: 일부는 나누었고 일부는 제비 뽑았습니다.
2. 아무 뼈도 꺾이지 않음: 로마 병정들은 명령을 어겼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미리 예언되었던 일을 행하였습니다.
3. 여덟 개의 이야기가 있는 은 30냥의 배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옷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왕이요 또한 선지자였던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천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언: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시편 22:18).

이 예언은 1,000년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9장 23~24절에서 말합니다.

성취: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

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요 19:23~24).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여러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 1. 그들이 내 겹옷을 나누며
- 2.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는 보초를 선 네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각자 한 조각씩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옷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한 조각씩 갖기를 원하여 그 속옷도 넷으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만일 그 속옷을 나눠 가지면 각자가 갖게 되는 것은 천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옷의 진정한 가치가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각자 천 한 조각을 갖는 것보다 한 사람이 속옷을 갖는 것이 낫겠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일은 천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십자가 밑의 군병 수와 예수님의 옷 조각 수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군병들은 미리 예언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천 년 전에 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몇 벌의 옷을 입을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의 군병이 그곳에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는 예언

모세가 1,300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첫 예언: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출 12:46).

이 구절은 출애굽 바로 전 유월절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오실 구속주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요단에서 요한에게 물에

담기는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둘째 예언: 이 부분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은 약 300년 후 다윗왕이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1,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은 모세의 기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세가 말한 어린양에 관한 내용은 한 사람 곧 의로운 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편 34:20).

성취: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요 19:31~33).

여기서 언급한 예비일은 안식일(토요일) 전날 곧 금요일입니다. 안식을 위한 예비를 이날에 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날을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날을 성 금요일(Good Friday)로 부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더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당신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을까요? 로마 군병들은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 하나의 다리를 꺾었고 다음에는 예수님의 다른 편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피해 갔습니다. 그들이 망설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짐작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넓적다리뼈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1,3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시 34:20).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군병들은 명령받지 않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없이 그들이 한 일은 선지자
스가라가 약 5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37절을 더 읽어 봅시다.

세 번째 예언: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 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출 12:46)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속 12:10)
하였느니라.”
명령이 없었는데도 군병들 중 하나가 그분이 참으로 돌아가셨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
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피가 이미 분해되었기 때문에 군병들은 그분이 돌아가
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에 주목해 봅시다.

세 선지자가 문자 그대로 성취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13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에, 스가라는 500년 전에 말입니다. 여러 세기 서로 떨어진 이 세 사
람은 서로를 알지 못하였지만 일치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했던 것일까요? 우
연이었을까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게시들은 모두 같은 출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분은 수 세기에 걸
쳐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
분은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예언: 그리스도께서는 은 30냥에 배반당하실 것이다.

첫째 예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약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하여 시 41:9에 예언됨).

다음 예언은 성취되기 500년 전에 스가라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스
가라 11장 12~13절에 있습니다.

둘째 예언: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해아린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000년 혹은 500년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은 마태복음 10장 4절과 마태복음 27장
1~10절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성취: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마 10:4).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
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
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마 27:1~10).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덟 가지 세부 사항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실 것임
2. 그분은 친구에게 배반당하실 것임
3. 배반자의 보수는 은 30냥이 될 것임
4. ‘황태자의 값’은 이방 노예의 값이었음
5. 돈은 은전이었음
6. 은 30냥은 어디에 두거나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던져질 것임
7. 은 30냥이 던져질 곳은 성전일 것임
8. 그 돈은 거기에 놓아두지 않고 토기장이에게 주어질 것임(밭을 사려고)

모든 일에 아주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지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의 성취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강화되
도록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인물

스토너 교수의 연구 결과

과학자 피터 스토너는 그의 저서 『과학이 말하고 보여 준다』에서 메시아에 대한 여덟 개의 예언을 다루며 “수학적 가능성의 계산에 따르면 우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덟 개의 예언이 무작위로 뽑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1에 0을 17개 붙인 것 곧 100,000,000,000,000,000 : 1입니다(Die Bibel im Test, Josh McDowell, CLV 2002, Seite 250~1).

스토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주어졌거나 선지자들이 자기 재량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했던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8개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8개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로 조금만 잘못되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토너는 그 후 메시아에 관한 48개의 예언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다.” 저는 당신이 성경이 신성한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증거를 살펴보는 데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추천

앞으로 당신에게 쓸 예언들에 관한 더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즐겁게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1: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6: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 가장 짧은 세계의 역사가 2,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 그것은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 여섯 예언 중 다섯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 유럽은 정치적 연합을 달성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9: 네 도시에 대한 예언

수학적 확률이 200조 :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 예루살렘 금문, 이상한 바위 도시 페트라, 전설의 바벨론, 타이어의 흥망성쇠

삭제

님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겠지요. 사실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그리고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미 12세에 그분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사상가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30세가 되실 때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3년 반 동안 순회 설교자로 이스라엘을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브룩스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군했던 모든 육군과 지금까지 항해했던 모든 해군과 지금까지 모였던 모든 의회와 지금까지 통치했던 모든 왕일지라도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의 생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했다고 내가 말한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뛰어난 역사가인 윌리엄 렉키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가장 덕망 높은 모본이었을 뿐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동기 부여가 되어 왔고 매우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짧은 3년 동안의 그의 활동적인 생애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모든 철학자의 논문들과 모든 도덕가의 권면들보다 인류를 더 갱생시키고 부드럽게 했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

▶ 예수님은 작가는 아니셨으나 다른 사람보다 그분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 더 많습니다.

- ▶ 그분은 역사가는 아니었으나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신문과 편지의 날 짜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 ▶ 예수님은 예술가가 아니셨으나 화가들, 조각가들과 음악가들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그분께 드러졌습니다.
- ▶ 예수님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 ▶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셨지만 그분은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 ▶ 예수님은 심리학자는 아니셨지만 모든 사람이 조언을 듣기 위해 그분께 왔습니다. 한 뛰어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 작품들 중 모든 졸작을 다 모아 소각해 버린다 할지라도 남은 작품들이 산상수훈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 ▶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분의 성공적인 생애는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 왜 그분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저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수 세기 전에 예언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신 것은 제자들을 흥분시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적 예언의 놀라운 기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께 333개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단 한 명의 가짜 메시아도 감히 이 예언을 자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사 7:14; 마 1:23)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미 5:2)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예언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마 11:1~6; 16:16~17; 눅 4:17~24; 요 4:25~26).

예수님은 산헤드린 앞에서 심문을 받으셨을 때 선서를 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64).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분명히 이해하였

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요 10:33).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18).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3)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계 1:8)고 하십니다.

목격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역사학자인 **요한 몽고메리**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첫째로 그리고 가장 먼저 역사학자는 신약의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줄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신약에서 목격자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요하네스 델 타우퍼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요 1:34).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것이었습니다(요 1:29).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요 6:68).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는 같은 것을 증언하였습니다(요 11:27).

도마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였으나 결국 살아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그는 성경의 기록들은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지휘한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 27:54).

바울은 처음에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열성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시라 아멘”(롬 9:5). 그는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골 2:9). 그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온전히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대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렵에 예수님을 꼭 사람이라고 불려야 한다면 현인이었던 예수님이 사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즐겨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권위자들의 고소를 받았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고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일들과 예수님에 대한 수천의 다른 경이로운 일들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이다.”

코넬리어스 텍시터스는 말했습니다. “그 이름의 창시자 그리스도는 디베료의 통치 시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요한 울프강은 “만일 신성이 이 지상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나타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이 한 철학자의 삶과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삶과 죽음이다.”

유명한 동양학자이며 비평가인 **어네스트 르난**은 주목할 만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결코 예수님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진지한 회의론자들이 이 사실들을 검토하였을 때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월레스 장군은 유명한 한 무신론자와 함께 기독교의 모순에 대하여 활기찬 토론을 하였습니다. 월레스는 기독교는 무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기의 책을 위하여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셨던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유명한 이야기 벤허를 썼습니다.

윌리엄 램지 경은 고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성경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고고학자였으며 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 동양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15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 기독교 신앙을 키우고 성경을 신뢰하게 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자신이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철학과 학장이며 교수인 **시릴 조드** 박사 역시 예수는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죄는 실체라고 믿습니다. 두 개의 세계 대전이 인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무신론자 **지오반니 파피니** 역시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책을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연구자 **아돌프 딥만**은 성경의 비신뢰성을 드러내려고 동양으로 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들 때문에 그도 헌신한 그리스도인과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 『고대 동양에서 온 빛』은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해 줍니다.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록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조쉬 맥도웰 교수 - 제2차 세계 대전 후 그는 27년 동안 52개국에 있는 500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3백50만이 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증거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이심에 이의를 제기한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정직하고 선입견이 없는, 진리를 찾는 사람 모두를 압도하고 있다.”

다음의 생각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상에 오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가장 작은 잘못도 범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자연의 법칙들 위에 계실 것이며 기적들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성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지속적이며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 나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기대합니다.
 - ▶ 나는 내가 그분께 요청하면 나를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예수님은 이 모든 기대를 세세한 부분까지 충족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분이 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맹렬한 원수였던 사울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시몬은 용감한 베드로가 되었으며 성급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한 생애와 만족과 용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는 일은 당신의 생애를 가장 부요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당신과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읽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편지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판매부장 **시그프리트 부취홀츠**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매혹적인 분이시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저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천

삭제

안드레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추가 편지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1: 시험대에 올려진 기독교 신앙

- ▶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3: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 98%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8: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 ▶ 성취 가능성 1:10¹⁷
- ▶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옷: 그들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
- ▶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로마 병사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예고된 대로 했다.
- ▶ 은 30조각에 대한 배신과 여덟 가지 세부 사항.

성경의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사람들의 98%가 성경의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남께

성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억 6천백만 권의 성경책이 보급되었습니다. 독일어 사용 국가만 살펴봐도(저자가 독일인이다. - 역자 주) 총 8백만 명의 사람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핵심 목적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에 따르면 98%의 사람이 성경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성경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주요 목적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삶은, 사랑과 기쁨, 자유와 안전 그리고 분명한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학업, 직업, 친구, 결혼,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복음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책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어떻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니?”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 ▶ 제가 계명을 지켰으니까요.
- ▶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 ▶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로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행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선한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행동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의 희생이 기반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새 생명은 무료입니다.

이 새 생명이 무료가 아니라면 부자, 권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에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오직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현재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내 모습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 수도승이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받을 때 돈을 내야 할까요?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모욕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어린이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얼마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돈 안 냈는데요. 선물 주신 부모님께 감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도 똑같습니다. 선물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선하심이라는 이 멋진 선물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10, 23).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족도 부양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제 일을 하고 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나요?” 그는 그렇다고 했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녀의 상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하루에 한 번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네!”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나요?”

그녀는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은 그러는 거 같은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죄를 짓는다면 일 년이면 1,000번이 되고, 태어나서 10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만 5천 번의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사 59:2)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하나님은 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죄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이기심, 증오, 전쟁 그리고 불행이 없는 세상이 다시 존재하려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요일 4:8; 단 9:14). 공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도 공의롭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인을 정죄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형벌을 자신이 떠맡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거나 천사였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값싼 것이 아니었을까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요 1:1~3, 14; 골 1:16; 히 1:2). 창조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없이 영생으로 가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법을 제정한 분이십니다(고전 10:4; 약 4:12; 요 5:22). 법을 제정한 존재만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취하심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보자가 되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벧후 2:22, 24; 사 53:4~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나요?

저 역시 어떻게 저의 부채를 다른 사람이 갚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거나 벌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재판이 있었고 기자들은 그 재판 전에 판사와 피의자가 서로 친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은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은 완전히 정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은 큰 벌금형이었고 죄목은 횡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판결받은 사람이 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은 그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벗은 후에 자기 친구 앞에 서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믿어?”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 없이 화난 얼굴로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판사였어. 판사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었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그는 친구의 눈앞에서 방금 그에게 선고한 높은 금액의 수표를 썼습니다. 그 금액은 판사에게 커다란 경제적 희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수표를 유죄 판결을 받은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그 친구는 수표 받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감사하고 신뢰하며 그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되

어 재판정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판결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형벌은 다른 누군가가 지불했습니다. 부채가 지불 되면 지불할 것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판사이십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그분은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롬 5:10; 요 15:14).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묻은 기꺼이 당신을 대신하여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함과 신뢰로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대신 갚아 주실 것이며 판결도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요 5:24).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요 14:13).

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나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옥의 간수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였습니다(행 16:30~31).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믿음’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영어로 “‘믿음’은 서게르만어인 ‘갈 라우본’에서 왔으며 그것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신뢰하다’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19). 이러한 믿음을 간단히 ‘지적인 믿음’이라고 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이 있거나 비상시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비상시 믿음’이라고 해 봅시다. 지적인 믿음은 좋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비상시 믿음도 좋습니다. 둘은 구원하는 믿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지적 믿음과 비상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 혹은 구원하는 믿음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믿음의 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젊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길 원합니다. 이 숙녀는 이 사람

이 좋은 사람이며 뛰어난 의사라고 확신했습니다(이것은 지적 믿음입니다.). 그녀는 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녀가 필요한 때에 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이것은 비상시 믿음입니다.).

의사는 그녀가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기쁩니다. 수술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젊은 여성은 그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이 의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그의 사랑에 응답할 때 약혼을 하면서 미리 “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삶을 함께하겠다고 “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한 예시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듣고 읽으며 결국 그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멈춰서 최고의 언약 즉 그분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환자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의 사랑이 예수님을 더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의지합니다(이것이 약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여기서 결혼식은 성경의 침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과 비교함

그 젊은 여성이 사랑과 신뢰함으로써 평생을 위하여 “네”라고 말한 순간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온전하며 헌신적인 ‘네’를 그분께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매우 좋은 비유가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23절에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결혼식에서 “네”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보통 여성은 남편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둘은 부모의 집을 떠나 한 집에 이사하여 함께 생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라고 그분께 말한 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함

니다. 우리는 그분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는 것 즉 기도를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나 묵상 시간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매주 안식일 하루 전체를 우리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나 교회 봉사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곳에 있는 가장 위대한 유업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위인가?

이제 선한 행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는 성경이 우리가 영생을 우리 힘으로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다시 읽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된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 새로운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으로 인해 생기는 열매입니다.**

결혼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한 여성이 한 남성과 결혼을 하는 이유가 그가 꽃을 가지고 왔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꽃은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커플이 결혼했을 때 서로 번 돈으로 가정의 재정을 충당하고 집안일과 살림하는 것을 서로 돕는다면 이는 선행일까요? 이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므로 그 누구도 이런 행위를 선행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

이므로 이런 행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신뢰 관계에 들어갈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나의 경험

저는 수년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응답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통찰로 인해 그 주 내내 저는 내적인 투쟁을 겪었습니다. 제 삶을 예수님께 바친다면 혹시 손실을 입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저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음을 깨달았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은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그분께 “네”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한 기도로 그분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볼 때 오직 한 가지가 후회됩니다. 바로 제가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고 좀 더 일찍 이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한 단계

다음의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를 정확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 진심이며 이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고 당신으로부터 제 자신을 분리시켜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드린 이런 온전한 말김의 기도는 약혼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약혼한 후에 남녀는 서로를 더욱더 잘 알아 가며 서로의 가치를 더 많이 알아 갑니다.

그 후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유에서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엘튼 윌터의 “신약의 증거 하기” 책자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인생을 누리십시오.

남께

제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직설적으로 하나 드려도 될까요?

당신이 오늘 사망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세요(심장마비 또는 사고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진실이 당신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사람은 누구나 일생일대의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9~10).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 ▶ 지금은 의미 있고 풍성한 생애
 - ▶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태초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한 이 결정을 “죄”라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역이든 소극적인 무관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2).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모든 불의가 죄로되”(요일 5:17).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아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생애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없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 혹은 세상을 더 낮게 만들려는 생각이나 종교적인 업적들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구렁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는 죄와 그 결과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3. 이 모든 인간의 노력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응답하시는가?

그분의 죽음으로 저의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그분 사이의 깊

은 구령을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4.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인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는:

- ▶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계 3:20).

두 가지 가능성

나의 자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음



나의 자아가 다스립니다. 그 결과는 높임을 받고 싶은 갈망, 의심, 불안, 죄책감, 내적 불안정 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평화, 확신, 용서, 사랑,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 ▶ 위의 그림 중 어떤 것이 내 삶을 나타낼까요?
- ▶ 왼쪽 그림인가 아니면 오른쪽 그림인가?
- ▶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 ▶ 당신은 미래에 어떤 그림을 원합니까?

▶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당장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아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나의 주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당신을 인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이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악의 권세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당신을 따를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존재와 함께 제 자신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저는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제 힘으로는 얻지 못했지만 이 선물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 기도에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자세히 이 기도를 한 번 더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의지에 일치하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곳은 바로 당신의 의지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큰소리로 해 보세요. 이제 나는 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초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확신을 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5.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삶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삶에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새로운 삶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후에 짜릿한 감정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한 엔지니어는 실망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헌신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감정 없이도 완전히 유효합니다. 나의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생일은 특정한 어떤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생일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일이 그날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구구단을 압니다. 예를 들면 2x2는 4 혹은 4x4는 16입니다. 구구단은 사실이며 당신이 사실이라고 느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느낌은 사실에 대한 척도가 아닙니다.

그 엔지니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어머니는 이 단순한 원칙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새로운 것 그리고 변한 것은 무엇인가?

- 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계 3:20; 골 1:27).
- ②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골 1:14; 요일 1:9).
- ③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요일 3:1).
- ④ 나의 생애는 이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요 10:10; 고후 5:14, 15, 17).
- 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나를 도우십니다(요 14:15; 15:10, 11).
- ⑥ 나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막 16:16).
- ⑦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요일 5:12).

예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생명은 성장이며 침례는 퇴행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 ▶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 ▶ 나는 하나님의 구속에 의지하고 요동하는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 ▶ 나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 ▶ 나는 기도 생활을 지속합니다.
- ▶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 ▶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정기적으로 교제를 갖습니다.
- ▶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 ▶ 나는 침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나는 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약혼에 빚대어 보고 싶습니다. 약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약혼 후에는 아름다운 시간이 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새로운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며 두 사람이 영원히 서로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 때가 오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의 결혼식은 성경의 침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요약해 보려고 하므로 당신은 어쩌면 제 편지를 여러 번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 부릅니다. 기도에 대해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복음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알게 하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또한 성경을 14일 시험해 보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안드레에게 보내는 편지 #15를 참고하세요.). 더 깊은 통찰을 위하여 주제별 성경 연구도 더하여 추천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무료 성경 통신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즐기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다음 편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나누기를 고대합니다(하나님의 능력 안에서의 삶 - 어떻게?). 예수님은 당신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당신은 만일 지금 당장 죽더라도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영적 상태에 계십니까? 당신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왜 하늘의 영생을 너에게 주어야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나 착한 생애로 영생과 하늘을 받거나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선물이며 아무도 선물에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에 의존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우리는 성경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요일 3:4 한글킹).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우리는 죄가 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서는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와 죄인들을 멸망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 1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벧전 2:24).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 5:12).
 우리는 그분이 우리 생애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함으로 그분을 받게 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믿음이란 그분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가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며,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결혼 약속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애

- ▶ **용서받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 ▶ **새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 ▶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 ▶ **승리하는 삶:**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
- ▶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 5:11).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길 바라시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교자 하셨던 영생이라는 무료 선물을 당신은 받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 ▶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가능합니다.
- ▶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주인 그리고 구원자로서 받아들입니다.
- ▶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 ▶ 우리는 자원하여 우리 과거의 죄 된 생활 습관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당신은 지금 문을 열어 예수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언약의 기도: 예수님, 저는 바로 지금 주님께서 저의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저의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도록 도우소서. 저는 주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확신을 위하여

당신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 6:47).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8).

하나님 능력 안에서의 삶 어떻게 가능한가?



남께

저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설교를 하고 싶었기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고자 그녀의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 경험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도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속적인 예수님과과의 관계를 위한 동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 차를 밀어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차에 기름이 있을 때 비로소 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름 없는 차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행 1:8).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 사랑스럽고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단 하나의 성경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9~13).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구하라”는 동사를 여섯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두 번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고 행동 동사 “찾으라”라는 말로 보강하시며 그다음 역시 행동 동사인 “두드리라”라는 동사를 두 번 더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하라”는 연속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한 번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구함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엇을 빠뜨리고 있음을 확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며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동사들을 자주 반복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능수능란하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성령은 그 안에 다른 모든 선물이 들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 하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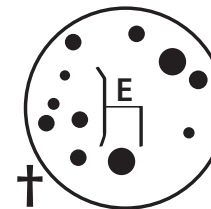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실체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이끄심에 맡길 때 우리에게 매일이 진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그룹의 사람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1.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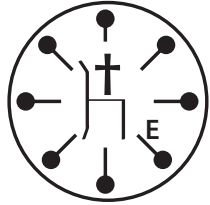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 E =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음
- † =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애 밖에 계심
- = 삶의 영역들은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자주 불화와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2.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고전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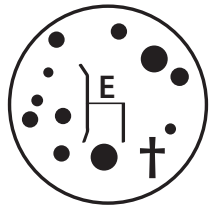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생애

† =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보좌에 계심
E = 자아는 물러남
● = 삶의 영역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성장하여 간다.

3.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성령의 능력 대신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패배를 경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전 3:1~3).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E =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음
† =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계시지만 그들의 보좌에 계시지는 않는다.
● =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종종 불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영역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네 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들과 육적 사람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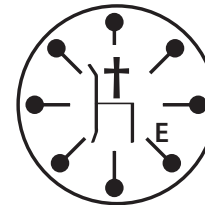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나타낸 몇 가지 특징들



- ▶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
- ▶ 성령을 통한 권위
- ▶ 효과적인 기도 생활
-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 ▶ 하나님을 신뢰함
- ▶ 하나님께 순종함
- ▶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사랑 | 희락 | 화평 | 오래 참음 | 자비 | 양선 | 충성 | 온유 | 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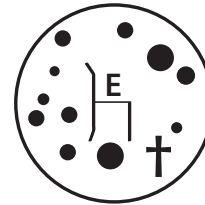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는 효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지, 그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금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를 알아 온 성숙한 그리스도인만큼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2. 육적인 사람들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몇 가지 혹은 모든 특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 ▶ 그분의 영적 재산들에 대해 무지함
- ▶ 불신
- ▶ 불순종
- ▶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랑
- ▶ 불충분한 기도 생활
- ▶ 성경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불순한 생각들 | 질투심 | 죄책감 | 불필요한 근심들 | 낙심 | 비판적인 태도 | 절망 | 목적 없음 | 율법주의(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일하여 얻어야 한다는 생각)

(자신들을 참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그리스도인인지 요한일서 2장 3절; 3장 6절; 3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따라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3. 예수님은 충만하고 열매 맺는 생애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와 권위의 결과이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계속 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사시며 역사하십니다.

A. 요한복음 3장 1~8절에 따르면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적인 생명을 받았고 그것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밖으로부터 공기, 물, 음식 등을 받음으로 보존됩니다. 영적 세계도 자연 세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적당한 때에 성경적 침례를 받음으로 증거 할 때 우리는 성경이 거듭났다(요 3:3)고 부르는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행 2:38; 요 1:12; 14:16~17). 그렇게 이 영적 생명은 살게 되며,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등이 함께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B. 성령은 풍성한 생명의 원천입니다(요 7:37~39).

C.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오셨습니다(요 16:1~15). 사람이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D.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4.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흘러넘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생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일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때 지금 성령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을 가지십시오(마 5:6; 요 7:37~39).

B. 성령으로 채움을 입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7:38).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 3: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고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담배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요청을 말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담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도를 위한 편지> 중 ‘담배와 술에 대한 승리’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부분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C.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13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지 서두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

A.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하는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모본 기도입니다.

모본 기도

하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실패한 시도들을 아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엡 5:18). 저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더욱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고(눅 11:13)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제가 요청한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성령으로 채워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요일 5:14~15).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무슨 권위에 기초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 11:6; 롬 14:22~23)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예는 사실(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느낌(믿음과 순종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기차는 화물칸을 달거나 달지 않거나 갈 수 있습니다. 화물칸이 기관차를 끈다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있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법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A. 당신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것이며(갈 5:22) 당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 갈 것입니다(롬 2:2; 고후 3:18).
- B.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 C. 당신은 유혹과 죄에 저항하도록 해 주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고전 10: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 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8).

D. 당신이 증거 할 때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행 1:8).

영적 호흡

믿음을 통해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태도나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에는 잘못된 것이나 불화와 같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불순종 즉 죄를 짓게 될 때는 영적인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영적 호흡(불결한 것들을 내쉬고 청결한 공기를 들이쉬)은 믿음을 행사하는 일이며, 영적 호흡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내심

당신은 죄들을 일일이 지목하고 고백하며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고 그분의 용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요일 1:9; 히 10:1~25). 고백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들림

당신 삶의 통치권을 다시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14~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당신을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거나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당신에게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배와 술을 정복함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온전히 자유 할 수 있을까요?

남께

오늘 저는 당신에게 흡연의 습관을 버리기 원하는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아돌프라는 이름의 39세 트럭 운전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매일 60~70개의 담배를 피웠으며 그 무엇보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금단 증상 없이 즉각적으로 흡연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는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으며 다만 나는 그를 정말로 돕기 원하며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돌프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즉각적이며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14일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맥주로부터도 자유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매일 10~14병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아돌프의 의사는 그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놀라워했습니다. 일 년 후에 그는 저축한 돈을 가지고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미국으로 휴가를 가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한 기도를 드린 후에 자유 하게 되었으나 나는 그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돌프에게 원가를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몇 개의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요일 5:1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조화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봅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연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나요?”라고 나는 물었습니다. “물론입

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흡연은 죄이지요?” “네!” 나는 이 질문을 수백의 흡연자들에게 했으며 아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사백만 이상의 사람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분은 우리가 죄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흡연의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는 아돌프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흡연이 죄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없이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 봐도 될까요? 만일 우리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흡연하는 죄를 기꺼이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매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후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요청할 때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하리라’(요 8:36, 한글킹제임스). 예수님은 여기서 만일 그분이 우리를 자유 하게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유 하게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약속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며,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체함 없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돌프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들을 어떤 조건들과 결부시키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필요 조건을 알 수 있도록 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약속하면 자녀들은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는 그와 똑같이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합니다(아돌프는 신자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인가 의지인가? -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는 아돌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

다. 당신은 금연하기를 희망합니까?(희망 사항) 아니면 금연을 원합니까?(의지로 인한 결정) 아돌프는 제게 확인했습니다. “나는 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마지막 담배를 피우길 원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다면 기도 후에 마지막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나의 마지막 담배를 피웠습니다.”라고 아돌프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확인하였지만, 기도하면서 그 무엇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기에 저에게 한 문장씩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그 문장을 따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저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드린 후에 우리는 함께 다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기도하였고 아돌프는 따라 했습니다(이 짧은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가 좋게 생각된다면 기본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다음의 짧은 기도를 더하십시오.).

기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당신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위한 저의 요청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며 저를 아끼신다는 것을 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흡연으로 제 몸을 해쳤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고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미 용서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흡연에 중독되었고 해방될 수 없습니다. 제가 금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음을 인하여 지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담배에 대한 욕망과 맛을 온전히 없애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일 인자(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 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며 아버지께 요청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미 아버지께서 저를 해방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도우심을 받아 저는 결코 다시 흡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설 때 나는 그를 포옹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승리에 대해 아돌프를 축하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는 더 이상 담배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맛을 느끼지 못했고, 아무 금단증상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다시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그에게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충분히 운동을 하면 자신의 몸을 독소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이즐넛(hazelnut)이나 주니퍼베리(딸기 종류 - 혈액 세척제)를 담배를 두던 자리에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이 습관적으로 옛 장소를 더듬을 때 그곳에서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또한 다른 흡연자들을 피하는 것이 좋는데 그 이유는 흔히 그들이 ‘이전 흡연자’를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돌프는 기도를 하고 난 직후에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가 흡연을 하고 싶은 욕망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분명하고 실제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돌프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15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독에서의 자유를 유지하려는 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아돌프는 저에게 자신을 다시 방문해서 다른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매일 맥주 10~14병을 마셨는데 거기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담배에 대해 했던 것처럼 술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 된 결박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같은 성경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없이 즉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일주일만 지나 후 나는 만일 아돌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그를 도울 의향으로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명을 붙잡으라> 전도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전도 책자에서 읽은 기도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추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죄인이오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생애에 들어오시옵소서. 저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합니다. 악의 권세에서 저를 자유 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따를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존재와 함께 제 전 존재를 당신께 순복합니다. 저는 영생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그것을 얻지 못했으나 이 선물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두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돌프는 자신이 기도 내용에 동의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책자를 펴 들고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 헌신의 기도는 약혼과 비교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약혼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며 그 뒤에는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있고 다음에는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시간 아저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가는 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약혼 후 적당한 시기에 하게 되는 결혼은 성경에 묘사한 그대로 침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아돌프는 그 길을 따라갔으며 그의 모든 죄의 용서, 그의 중독의 사슬로부터의 해방, 자기 생애에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온전히 두른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당신도 고무되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OOK 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을 받음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 엘렌 G. 화잇, 산상보훈, MB 20. 3(egw writings.org)
-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p. 101
- www.step-to-personal-revival.info

▶ **제1장 :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권능 있는 기별을 들어 보셨나요?

▶ **제2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이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 **제3장: 우리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 **제4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가 무엇일까요?

▶ **제5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제6장: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에서의 경험들

▶ **제7장: 관심과 나눔**

- “우리가 남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독일 격언).
나는 다른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 어떤 길이 있습니까?



BOOK ②: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예수님 안에 거함 -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계속하여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며 그분의 봉사 사업에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를 뜻합니다.

■ 엘렌 G. 화잇(시대의 소망, 676.2)

■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함으로 얻는 어떤 상급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일하는 편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결과요 권능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앤드류 머레이).

▶ 제1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 그대는 예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기별에 익숙한가?
-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비유에서 성령을 말씀하심

▶ 제2장: 예수님께 순복함

- 나는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가? 아니면 더 강해지는가?
- 예수께 나를 순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인가?

▶ 제3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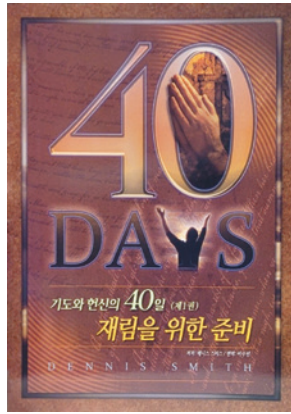
-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총만으로 물든 존재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효력들
- 우리는 어떻게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얻는가?
-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다시 “육신”이 되는가?

▶ 제4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

- 어떻게 하면 나는 즐거이 순종하며 살 수 있나?
- 그것은 왜 기쁜 일인가? 순종은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한 순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

▶ 제5장: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신앙

- 신자 간의 하나 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족과 세상에 매력이 되게 하는가?
-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 되게 하는가?
-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



40 DAYS: BOOK 1

기도와 헌신의 40일 재림을 위한 준비

- 데니스 스미스 저
- 주문: sijosausa.com (한국)
213-388-6100(미주)

당신은 좀 더 의미 있는 공부와 기도 생활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책은 40일 동안의 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왜 40일일까요? 성경에는 40일 동안 일어났던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 모세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약속된 땅을 정탐하는 데 40일이 걸렸습니다.
-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에서 경고했습니다.
-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삶에서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40일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마지막 위기와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당신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40 DAYS: BOOK 2

기도와 헌신의 40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 데니스 스미스 저
- 오순군·이수민 공역
- 주문: sijosausa.com (한국)
213-388-6100(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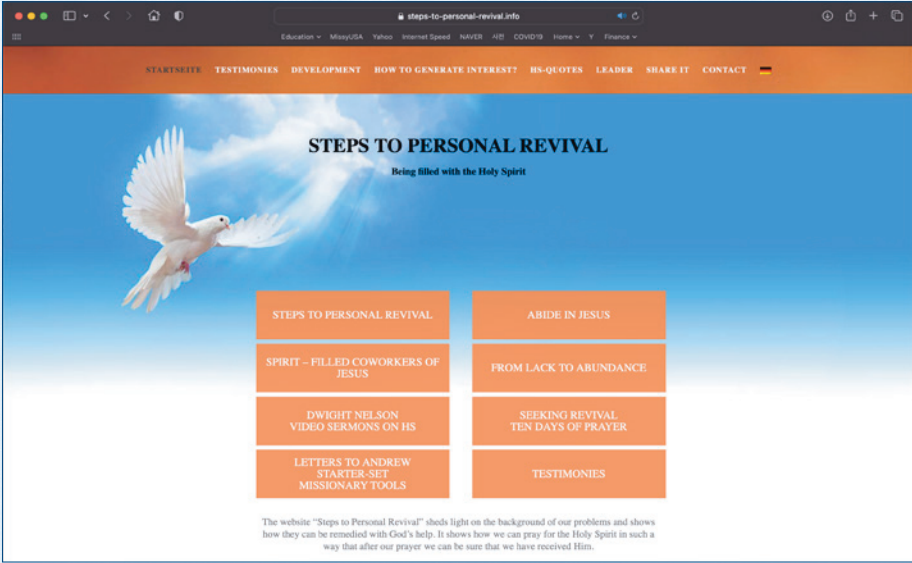
이 기도력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에 이어 제2권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아울러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위해 세상에 경고할 목적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신도들이 40일 기간을 기도와 성경 연구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함으로 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4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주께서 택정해 주신 다섯 명의 구도자들을 기도의 제단에 올리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고 하셨습니다. 연합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고 신자들의 친교에는 상호 협력과 영적 내구력이 있습니다.

- ▶ 제1부: 놀라운 경험을 가진 백성
- ▶ 제2부: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
- ▶ 제3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 ▶ 제4부: 힘들지만 필수적인 경험들
- ▶ 제5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된 백성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143개국의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책과 자료들을 무료로 읽고 출력하고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170개 이상의 간증 / 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 / 성령에 관한 중요한 인용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책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드와이트 넬슨 목사의 간증, 앤드루스 대학교 내의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교회의 담임목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과 성령
왜 우리에게 성령의 결핍이 있는가? 이유, 결과 및 해결책

오디오북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시영 목사의 신앙 방송, 에덴병원교회 녹음 팀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 - 세 번의 설교 시리즈
넬슨 목사의 설교 비디오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 7개의 설교 말씀과
『예수님 안에 거함』 5개의 설교 말씀

17개 <전도를 위한 편지> - 믿음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증된 선교용 도구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 7장과 9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